

오늘은 사도바울의 전 지구적 역사관(歷史觀)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류(人類)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가운데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직접만나지 않았으나, 역사가운데 존재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대하였기 때문에 직(直),간접적(間接的)으로 우리의 생존에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던 안하던, 그들은 우리의 존재가운데 내재화되어있을 정도로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이미 끼친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지성인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두 사람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2,197(신오진조사)명이나 됩니다. 그 중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금 바울사도는 그 중 단 두명을 알아야 한다면, <아담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분씩 만나봅시다.

이들을 알지못하면 우리 자신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생존(生存)과 기질(氣質)의 본질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안에 있기도 하고, 예수안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간에 왔습니다.

I. 첫 번째 만날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첫 사람 아담입니다.

구약에 99번, 신약에 45번 등장하는 아담은, 첫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아담=창83번등장)

아담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2:19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인간창조였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를 처음엔 ‘사람’이라고 하였고, 2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1:27절의 ‘사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아담(Adam)이란 말의 뜻은 ‘사람’ 또는 ‘불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baby가 아닌, 성인으로 창조된 최초이자, 마지막 인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창조라는 것을 암시(暗示)합니다. 인간은 창조의 걸작(傑作)인 셈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살,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이름 하여 에덴입니다.

창2:8-14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創設)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江)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미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강이 흐르려면 에덴은, 산과 같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산(山)은 자원도 풍부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도 있습니다. 산림(山林)이 우거진 완벽한 무릉도원(武陵桃源)입니다. 일종의 전원생활입니다. 완벽한 환경에서의 전원생활입니다.

그리고 할 일도 있습니다. 경작(耕作)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관리지침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바로 선악과 문제입니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경고(警告)는, 이 에덴의 삶이 영원이 아니라, 앓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려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의 자율성,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과 성향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독단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심으로, 만일 선악과를 선택하면, 죽음에 이르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영적단절, 영적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때의 상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영적생명의 상실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진부한 질문을 던져버릴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고 자신을 떠날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독(惡毒)한 주인(主人)이, 그의 일군들을 혹사시킬 때에, 여권(旅券)부터 압수해 놓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떠날 자유를 주십니다. 다만, 떠날 때, 너의 상태가 나와 단절될 것이라는 정도의,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없는 책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청지기로 계속 살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의 인공지능과 AI를 만드는 인간의 마음과 같다고 할까요? 인간은 이들에게 자율결정권을 쥐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영화와 같이 저들에 의해 인간이 지배받는 세상이 올까봐 걱정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런 걱정보다도 자율권을 주지않는 것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해쳐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보다는, 에덴의 소유권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접근하지 못하게 전기철조망을 치지도,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격리(隔離)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때로, 어쩌면, 뱀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조차 합니다(오해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아담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어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창세기 3:6절에 의하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한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라는 거짓말로 감언이설(甘言利說)하여 범죄(犯罪)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아담창조는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인류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승리한 듯 보이고, 세상은 아담이 걸어갔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엔 살인 강간 폭력 집단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외면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속역사는 되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신의 세대에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벽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천년전에, <한 다른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II. 바울은 두 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소개하나> 면서 괴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1장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 사람 이상(以上)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빛과 생명이신 예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하나님을 보이신 유일한 존재인 예수.. 모두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재와 영원하신 하나님되심은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의 구석구석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5절 하(下)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17,19 절에서 반복해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45-47절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수동태)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능동태)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사람이라고도 하고있

습니다. 이 구도는 아담과 예수님을 두 대척점에 두는 말씀입니다. 두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意圖)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可能性)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건임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실패한 역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하나님을 좌절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방법으로 인류구원의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정리합니다.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模型)이라.

1)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2) 이 죄가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원죄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역사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자하는 열망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계명을 정해주면 그 계명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 죄성의 강력한 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표현은 인간은 종이고, 사탄은 왕처럼 승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사탄의 계교가 승리했으니 하나님은 망하신 것인가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反轉)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模型)이라. 롬5:14b>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a pattern of the one to come(NIV) the figure of him that was to come(KJV)**

사도는 아담에게서 오실 자를 보는 것입니다. 장구한 시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한 거룩한 역사의 흐름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아담-모세-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시간으로는 수천년이 지나가지만, 그 영겁의 시간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시선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씀에는 초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소중한 역사의 관점입니다. 아담의 타락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형이어서, 본질을 다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오실 그 분 (the one to come)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그 사명을 다하셨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세상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 의롭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왔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되었다.**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원죄(原罪)를 원망(怨望)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결론(結論)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마지막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아담이 범한 죄와 그 영향력을 끊으시고, 그 결과인 사망을 응징하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원죄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선한 영향력의 질서를 따르는 본을 세우신 것입니다.

III. 도전: 아담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 당신은 어디서 살겠는가?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역사를 보는 눈,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었고, 예수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사람은 죄와 사망의 시조가 되었고 다른 한분은 의와 생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두사람의 족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아래 가두는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은 그 죄아래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를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길을 예수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와 죄와 정욕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담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안에 산다면 우리는 예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안에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살 것인가가 남아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인류에게 씌워졌던 원죄의 굴레를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사망을 다 하심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아담안에서 충분히 살만큼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으며 우리안에 선형적으로 존재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충분히 아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살만 합니다.

그리스도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13가지 축복이 있더라구요.

생명, 영생, 죄사함, 거룩함, 믿음과 사랑, 은혜, 자유, 하나님의 섭리, 상급, 평안, 확신, 소원, 구원의 역사,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부록 : 예수 안에 있는 것들

1. 예수안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이라 로마서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디모데 후서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예수안에는 죄사함, 거룩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라

3.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베소서 1: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서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3: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1: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후서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4.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5. 예수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6. 예수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7. 상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빌립보서 3: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에베소서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8.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14: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디모데후서 2: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0. 소원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1. 교회와 동역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빌립보서 1: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2. 생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3. 박해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기도 : 한사람만 잘 만나면 됩니다.